

## 원발성 흉벽 종양의 임상적 고찰

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김창곤·김태호·서연호·김민호·조중구·김공수

원발성 흉벽 종양은 종양의 크기, 발생 부위, 종양의 성상에 따라 수술시에 폐 기능의 보존을 위해 흉벽재건이 필요할 수 있다. 1979년 1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전북대학교병원 흉부외과에서 치료한 원발성 흉벽 종양은 51예이다. 원발성 종양 중 양성종양이 40예(78.4%), 악성종양이 11예(21.6%)이었다. 원발성 종양 환자의 평균 나이는 36.1세이고 남자는 32명, 여자는 19명이었고 악성 종양은 50~60대에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양성 종양은 고령 연령 분포를 보이고 있다. 증상은 국소 종괴, 국소 동통, 통증이 동반된 종창이 각각 32(62.7%), 3(5.8%), 15(29.4%)예에서 있었고 양성 종양에 비하여 악성 종양은 통증이 동반된 종창을 더 호소하였다. 양성 종양은 골 및 연골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는 24예(60.0%), 연부 조직에서 발생한 경우는 16예(40.0%)이다. 악성 종양은 9예(81.8%)는 골 및 연골 조직에서, 2예(18.2%)는 연부 조직에서 발생하였다. 조직의 평균 종양의 크기는 악성 종양, 양성 종양이 각각 11.8, 3.8cm이었고 가장 많은 종양은 섬유성 골이형성증이었다. 원발성 종양의 수술적 방법은 악성 종양인 경우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는 8예(72.7%), 양성 종양은 3예에서 광범위 절제술이 시행되었고 34예(85%)에서는 절제술만 시행되었다. 광범위 절제술이 시행된 5예에서는 Marlex Mesh와 Teflon을 이용하여 흉곽 재건술이 시행되었다. 술후 합병증으로 흉막 삼출, 창상 감염, 혈종이 각각 1예씩 있었고 악성 섬유성 조직구종 1예에서는 10개월 후 재발하여 다시 광범위 절제술 후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. 모든 예에서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없었다.